

# '춘향애인' 농산물 브랜드 최우수 '순창사랑상품권' 판매 재개

### 오늘부터 지류형 관내 26개 금융기관·모바일형은 앱 통해 구입

지난해 발행한 상품권 모두가 연말에 팔리면서 구매할 수 없었던 순창사랑상품권이 7일 판매가 재개된다. 군은 7일부터 순창사랑상품권을 지류형 120억, 모바일형 30억원 규모로 발행, 지류형은 관내 26개 금융기관에서, 모바일형은 지역상품권 chak 어플리케이션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류형 순창사랑상품권 245억원을 발행했지만, 농민 수당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모두 완판되면서 연말에는 지류형 순창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여파로 아직 지역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평시에도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적용해 지역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품권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점이 있다. 기존에는 상품권 사용시 사용금액에 관계없이 잔액 전부를 현금으로 돌려줬다면 올해부터는 상품권 금액의 60%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로 변경됐다.

또, 기존에 가맹점은 당일 환전이 가능했으나 신청일 다음날 해당 사업주 통장으로 이체된다. 가맹점 환전금액

을 매월 1,000만원까지로 정했으며, 월 한도금액 이상 환전을 원할 경우 매출 증빙 후 추가 환전이 가능하다.

상품권 사용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는 예산상의 문제로 폐지되어 올해는 적용받을 수 없다.

군은 제직비와 수수료 등의 부담이 큰 지류형 상품권보다는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가운데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모집에 주력할 서포터즈를 이달 한달 간 운영해 가맹점 확대에 나선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휴대폰만 있으면 상품권 구입과 결제가 가능하고 가맹점주도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환전이 가능하다는 편리성이 있어 이용자들과 가맹점주 모두에게 이점이 크다.

군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류형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와 모바일형 상품권의 결제방법이 복잡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오는 3월 선불형 체크카드형 상품권을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품권 사용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농가소득 향상 적극 노력 등 높이 평가

남원지역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춘향愛人)'이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2020년 농산물 우수 브랜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전국 지자체와 연합사업조직(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분야 중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및 소비자 만족도, 지자체협력사업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국 6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춘향애인은 2019년 우수상에 이어 2020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원예산업종합발전계획 이행평가 및 산지유통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 남원시와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 통합마케팅 공동추진을 비롯해 남원농산물 공동

브랜드 '춘향애인' 육성과 농가소득 향상에 적극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이는 농산물 통합마케팅에 적극 참여한 농가와 참여 조직의 끈기와 노력이 결실을 맺은 뜻 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남원시는 2013년부터 '춘향애인' 공동브랜드와 농산물통합마케팅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적극 육성·지원해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마케팅에 중점을 둔 산지유통 시스템을 갖추어 농산물 통합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20년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매출 실적 882억원을 달성했으며, 이는 코로나19 및 수해, 동해, 우박 등 자연재해가 많았던 상황에서도 전년도 877억원을 넘어선 실적으로, 전국 시·군 단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이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2020년 농산물 우수 브랜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위 기초지자체중 최고로 인정받는 통합마케팅 조직임이 재확인 된 것이다.

김영선 남원시 원예허브과장은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생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약 10% 할인해 드립니다"

### 임실군, 대대적 홍보 전개

임실군이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심민 군수는 6일 간부회의를 통해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군민들에게 적극 알리려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어있는 기간의 약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 같은 혜택을 힘입어 지난 해에는 전년도보다 15% 이상 증가한 20억원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에도 연납제도 신청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는 신청자 이외에 신청을 원하는 군민에 대해서도 연납고지서를 발송해 불편을 덜어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군은 7일 연납신청 차량 및 관내 등록된 모든 승용자동차 소유자에게 1만583건에 25억1,300만원의 연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 연납제도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조기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납분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탁사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연납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은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 홍보판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 처리 등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온실농장 운영 열혈청년농부 추가 모집

순창군이 오는 11일까지 온실농장을 경영할 열혈청년농부를 추가로 모집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1차 모집을 거쳐 전체 9동 중 6동은 선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3동에 한해 온실농장을 운영할 청년농부의 참여를 기다린다.

순창군은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창업에 대한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9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0억원을 확보, 스마트와 일반 온실 9동을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일대에 조성했다.

이번에 추가로 임차인 모집에 나서는 온실 3동은 딸기육묘장 1동과 스마트 딸기온실 2동이며, 연간 임대료는 최소 200만원에서 300만원이다. 시설 재배 같은 경우,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 초보 영농인이 도전하기에 쉽지 않지만 연간 300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재배를 운영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의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신청자격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

고 실제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농업인 중 독립경영 3년 이하 사람이 해당된다.

군은 임차인에게 영농교육과 컨설팅을 우선지원하며, 임차기한은 3년이다. 시설을 임차한 청년농업인은 본인 책임하에 영농계획, 재배, 판매 등 모든 영농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방문해 임대 신청서와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생명농업과 기술보급계(063-650-5632)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추진

남원시는 올해 처음으로 관내 섬진강과 요천 국가하천 구간에 수문 원격 제어 등이 가능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하천분야 SOC 디지털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대상 지구에 선정, 14개소에 예상 사업비 19억원 전액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남원시는 우선 실시설계비 1억 3,700만원을 확보해 설계용역을 추진

하였으며, 익산국토관리청 사전설계심의 및 총사업비 승인과 원가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착수해 올해 우기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국가하천 내 수문의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CCTV 설치, 통신망 연결, 종합상황실 장비 등을 통해 신속한 홍수 관리 및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히,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ICT)을 접목해 하천 수위와 수문 개폐를 자동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사전 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남원시 적극행정 지원회가 9명의 2020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선발된 공무원들은 지난 8월 섬진강 수해복구와 코로나19 위기극구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국비 확보에 기여한 공무원이다.

우수상(4명)은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한 정규상 주무관, ▲남원 관광활성화를 위해 국비 100억원을 확보한 양진호 주무관, ▲LX드론 활용센터를 유치에 기여한 정경민 주무관, ▲남원시 도서관 건립을 위해 국비 59억원을 확보한 김영미 담당이 선정됐으며, 이외에도 5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국립임실호국원, 신축년 새해 청렴서약 결의 다져

국립임실호국원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전 직원이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현충탑 참배를 가졌다.

2021년도 국립임실호국원은 참배 이후 전 직원 청렴서약으로 진행, 이를 통해 보훈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정부혁신 추진을 강도 있게 추진할 역량을 갖출 것을 다짐했다.

김덕석 국립임실호국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도 따뜻한 보훈, 열린 국립묘지를 거듭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는 물론, 보훈공직자로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에 전 직원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국립임실호국원 무연고 묘소 기일 참배

국립임실호국원은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원에 안장된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 중 1월에 기일을 맞이하는 故 육군중령 정성익 등 14위를 대상으로 지난 4일 직원들이 의전단과 함께 무연고 묘소 참배를 실시했다.

현재 호국원에는 총 94위의 무연고 국가유공자가 안장되어 있으며, 묘역에 54위, 총령당에 40위가 안장되어 있다. 무연고 묘소는 비석과 봉안명패의 가족사항 기재여부를 확인하여 그 현황을 파악한 후 국립묘지 차원에서 무연고 묘소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 및 보훈단체, 초·중·고교 봉사활동, 1사1묘역 협약기관, 국립묘지 지킴이 등을 통해 묘소 및 총령당 무연고 묘소 참배 및 봉사활동 등을 릴레이식으로 실시하고 국립묘지 의전단을 활용하여 참배시 진혼곡 연주 및 조화교체 등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덕석 국립임실호국원장은 "국립묘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혁신과제로 '국립묘지 내 무연고 묘소관리 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연고 묘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그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려하고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